강북구, 31일 '교육박람회·진학설명회'

진로 토크 콘서트·과학기술 체험 부스등 운영

2028 대학입시 설명회도… 참가자 250명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31일 '2025 강북 교육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2028 대학입시 바르게 이해하기' 설명회 참석자를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 전문기관 유니브클래스 윤여정 대표 컨설턴트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윤여정 대표는 은앤고 입시컨설팅 이사, ETOOS 공교육 사업단 연구원 등으로 입시 현장에서 활동해왔다.

강연에서는 ▲입시제도 변화 이해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유불리 분석 ▲대학별 2028학년도 입시 전망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준비해야 할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관심있는 강북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접수 150명과 현장 접수 100명 등 총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강북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5 강북 교육박람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북구청 대강당과 광장 일대에서 열리며, 고교 진학 설명회, 진로 토크 콘서트, 적성검사, 미래 과학기술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변화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우리 구민이 앞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개관

파주시, 평생교육·여가·돌봄등 다양한 서비스

AI 첨단기술 기반 장애인 재활 로봇프로 운영

경기 파주시는 지난 29일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상담, 평생교육, 여가문화, 건강증진, 돌봄서비스, 주간이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반 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재활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관이다.

행사는 복지관 개관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복지관 1호 회원증 수여식, 내빈들의 기념사 및 축사, 그리고 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와 시설 견학(라운딩) 순으로 진행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개관을 맞아 파주시미술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식당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식사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더욱 풍성한 날이 됐다.

이번에 문을 연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통합형 복지시설로, 건강·문화·여가·재활 프로그램을 두루 갖춰 지역 주민의 생활 복지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개관을 기념해 한달간 영화관람, 노래교실, 건강특강 등 다채로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복지공간으로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문열어… 미디어존·조리실등 갖춰

지상 4층 연면적 2251㎡… 개발사업 기부채납

경기 용인시가 지난 29일 오후 수지구 동천동에 조성된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학교장, 시의원, 청소년,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에서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멋진 꿈을 잘 가꾸고, 진로도 잘 탐색하며 문화·예술 활동과 건강증진 활동을 잘 하면서 훌륭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각 학교의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독려도 해 주시면 좋겠다"며 "시설 위탁을 받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한 시설이다.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9월 준공됐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2251㎡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미디어존, 스터디존, 플레이존, 밴드실, 댄스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이 마련됐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중 최초로 조리실을 갖춰 청소년들의 요리·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시설 운영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이천시, 닥터헬기 인계점 신규 지정

SK하이닉스 축구장에 조성

응급환자 이송거점 11곳 확보

경기 이천시가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협력해 'SK하이닉스 축구장 부지'를 닥터헬기 인계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계점은 구급차와 헬기 간 환자 인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장소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거점이다.

이번에 지정된 'SK하이닉스 인계점'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으나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 일부를 개선·개방해 조성됐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 확충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이천시는 2024년 군부대 인계점 3곳과 이번 SK하이닉스 1곳을 포함해 총 11곳의 닥터헬기 인계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인계점은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견고한 이송 거점 체계가 구축되면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닥터헬기 인계점 신규 지정은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시민의 생명선, 골든타임을 지켜낼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방서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고양시, 백석국민체육센터 첫삽

지상3층 연면적 2151㎡ 규모

다목적체육관·관람석등 갖춰

경기 고양시가 지난 29일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백석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이동환 시장, 이기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백석동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해 백석국민체육센터 착공을 축하했다.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151.34㎡(652평) 규모의 건축물로 다목적체육관과 관람석, 운동처방, 사무실 등 지역주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다질 복합공간이다.

센터 1층에는 체육관의 입구, 로비 등 공용공간으로만 조성된다. 주차장은 대부분 통행이 쉬운 기둥 구조(필로티 구조)로 조성돼 장애인, 노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2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기존의 구기종목 뿐만 아니라 격투기, 무슈(무술) 등 비인기 종목을 즐길 수 있으며, 운동처방실, 샤워실 등이 설치된다.

3층에는 체육센터 운영 사무실과 200석 규모의 관람석이 설치돼 운동경기·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임대공간을 별개의 건물로 마련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10일까지 반려동물 사진 공모

영등포구, 심사 후 6명 선정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반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우리는 가족입니다'로, 반려동물과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류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영등포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25년 기준 2만995마리에 달한다.

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반려 가족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심사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되고, 결과는 오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구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펫티켓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영등포구 기자 yyj@siminilbo.co.kr

서산시, 이달부터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친족에 수당… 月 최대 60만원 지원

충남 서산시는 1일부터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육 공백 가정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다.

돌봄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의 24~48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일 기준 돌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4촌 이내 친족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상자는 부정수급 방지 및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완섭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취약계층 아동 한방치료

광진구-한의사회 업무협약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최근 구청에서 광진구한의사회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한방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진구한의사회는 지역 내에 근무·거주 중인 186명의 한의사로 구성된 단체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소속 분회이다. 199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협약식은 김경호 구청장과 강오석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 협약서명·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추천하고, 광진구한의사회는 무료 한방치료와 한약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이기재 구청장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양천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새단장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노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의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장기간의 운영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와 가구를 교체해 노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바닥 및 천장 보수 ▲배식대 및 퇴식대 교체 ▲중앙 싱크대 및 조리대 교체 ▲식탁·의자, 수납장 교체 등 시설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끄럼 위험이 있는 기존 타일은 친환경 특수 바닥재로 전면 교체해 노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낡은 전기 배선을 새로 정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또 주방 설비를 전면 교체해 급식 환경의 위생 수준을 대폭 향상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장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남부청사에서 '2025년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직속기관장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정책기획관, 19개 직속기관장과 본청 관련 부서장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9월1일자로 새롭게 임명된 3개 직속기관장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의 비전과 특색을 살린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기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 및 지원 방안 ▲기관별 구성원 역량 강화 활성화 방안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현안 안내(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양성 및 연수 과정 운영 사례 공유(경기도교육정율곡연수원) ▲공유학교 성공 모델 기반 경기온라인학교 적용을 위한 새 모델 확립 방안(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등을 설명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웹툰작가 직업 특강

인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1일까지 영상미디어센터 10월 일일특강 '웹툰작가 직업 특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평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3~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미디어 분야 직업인 웹툰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웹툰을 제작해보는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강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련관에서 열리며,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박건호 청소년수련관장은 "이번 영상미디어센터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디어 직업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성북구, 숭덕초교서 아동학대·유괴 예방 캠페인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최근 숭덕초등학교 정문에서 아동학대와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예방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유관기관이 협력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에게 아동학대와 유괴 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과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범죄 예방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배너와 피켓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에도 지역내 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적인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안산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홍보

경기 안산시가 최근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내 안전문화·확산을 목표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교육청장, 중앙초등학교장, 단원구청장, 단원경찰서 및 학부모폴리스, 단원모범운전자회, 중앙동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퍼포먼스와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안전 히어로 퍼포먼스 ▲피켓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다-보다-걷다' 원칙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안산=송운근 기자 ygs@siminilbo.co.kr